

## 요한계시록 14:6에 나타난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υ의 번역에 관한 연구

이달\*

### 1. 들어가는 말

유진 나이다가 발전시킨 번역 이론인 형식적 동등성과 기능적 동등성의 문제는 전반적인 번역 철학과 관련되는 명제이지만, 결국 그것은 구체적인 단어나 구절을 번역할 때도 적용된다. 성경 번역자가 아무리 성경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려고 해도, 성경 저자와 독자의 언어 사이에는 극복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그것은 주로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렇게 원천 언어와 수용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나 그들 언어가 속한 문화의 차이를 온전히 극복하여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자연스럽게 기능적 동등성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좋은 번역이란 형식적 일치보다는 의미의 일치를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나이다 역시 번역에 있어서 옛날에는 본문 메시지의 “형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요즈음에는 “수용자의 반응”(the response of the receptor)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sup>1)</sup>

필자는 이 글에서 요한계시록 14:6에 나오는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두고,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살펴본 다음 바람직한 번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요한은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이라는 표

\* 한남대학교 교수, 신약학, 이 논문은 한남대학교 2011년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1) Eugene A. Nida and Charles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82), 1-2. 나이다는 계속해서 원천언어로부터 번역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수용언어에 대한 태도를 올바르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3-6쪽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번역자는 모든 언어가 그 언어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형식을 메시지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지 않는다면, 어떤 언어에서 동등한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이 한 가지 이상일 수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메시지의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형식은 변화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현을 통해 무엇을 의미하고자 했을까?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이 보여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속적인 구원의 복음에 관해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여러 주석가들의 본문 주석을 통해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구원의 개념과는 다른 심판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일까? 필자는 요한계시록 14:6의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이 일반적인 구원의 복음에 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점을 이끌고 나가기 위한 전제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단어나 구절들을 번역함에 있어 단지 문자적으로 같은 의미의 대응어를 찾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번역하려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을 통해 찾아내게 되는가? 단어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그 단어가 사용된 문맥과 언어적 환경인 문화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요한계시록 14:6의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의 적절한 번역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논의의 바탕이 되는 문제들

번역은 의미를 전달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형식적 동등성이 아닌 기능적 동등성/내용적 동등성을 번역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다소 유연한 작업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왕대일은 번역과 주석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번역의 대상이 원문의 형식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sup>2)</sup> “첫째, 원문의 구조를 간과하지 말라; 둘째, 단어나 구문의 뜻을 문맥에서 찾아보라; 셋째, 단어나 구문의 의미 파악에 역사적·지리적·사회적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라.”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조경철은 주석과 번역의 과제를 다루면서 동일한 단어/표현을 각각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를 살피고 있다. 그는 특히 에베소서 1:10의 “오이코노미아”를 번역하면서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직무, 직분, 사명, 경륜, 계획, 일꾼, 실행, 실현)을 제시한다.<sup>3)</sup> 결론적으로, 조경철은 정확한 번역을 위하여 네 가지 원칙을 열거하고 있다:<sup>4)</sup> 문

2) 왕대일, “번역 속의 주석, 그 가능성과 한계-내용 동등성 번역의 경우-”, 『성경원문연구』 16 (2006), 71-75.

3) 조경철, “성서 주석과 번역-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사례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4 (2009), 126.

4) Ibid., 128.

법적인 지식, 문맥, 문헌 전체의 신학, 그리고 성서 시대의 문화적인 차원. 필자는 이 같은 원칙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요한계시록 14:6에 나오는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의 번역과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맥과 일관성의 문제 및 문화와 의미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2.1. 문맥과 일관성의 문제

어떤 단어나 구절을 번역할 때, 그것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 경우에(특히 같은 저자의 글에서) 같은 번역어로 표현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만약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마다 다른 번역어로 그것을 번역하게 된다면, 독자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며, 저자가 의도하였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같은 단어를 그에 상응하는 같은 번역어로 일관성 있게 번역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인 듯하다.

그렇다면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토대로 한 색인과 번역된 성경에 기초한 색인들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 원문 성경 색인과 번역된 성경 색인들 사이는 물론, 서로 다른 번역된 성경 색인들 사이에서도 온전한 일관성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부주의나 무감각에서 비롯된 결과만은 아니다. 이렇게 색인에서 차이를 보인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한 저자의 신학을 정립하는 데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때로는 한 단어가 같은 번역어로 동일하게 번역되지 않는데, 그러한 현실은 그 단어가 사용된 문맥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의미로 번역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올로프손(Olofsson)은 칠십인역 성서의 번역 기술에 관해 논하면서, 판에 박힌 번역이나 문자적인 번역과 같이 일관성을 추구하는 번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토브(E. Tov)의 견해를 인용하여 “대다수의 판에 박힌 번역은 문제가 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모든’ 의미를 다 포용할 수 없다.”<sup>5)</sup>고 강조한다. 또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없는 또 다른 예는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 저자 시대보다 앞서거나 뒤선 시대의 의미를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πιστις”(믿음)를 번역할 때, 신약성서보다 나중에 기록된 교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인 “교리”의 개념을 신약성서의 번역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sup>6)</sup> 이같은 예는 일관성보다 문맥이 중요시되어

5) Staffan Olofsson, “Consistency as a translation technique”, *SJOT*, 6:1 (1992), 16.

6) Eugene A. Nida and Charles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82), 8 참조.

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영미는 나이다를 인용하여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단어와 구문은 같은 방식으로 번역할 것”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sup>7)</sup> 일관성은 동일 문맥과 평행본문 번역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일관성은 중요한 번역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객관성의 환상에 사로잡히는 일일 수도 있다.<sup>8)</sup> 중요한 것은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되는 번역인데, 의미를 강조하게 되면 일관성을 가진 번역어의 형태를 가지기 힘들 수도 있다. 즉 의미가 형식보다 우선하게 된다.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이 든다면, 문제가 되는 단어의 번역에 있어 가장 긴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문맥이다. 문맥은 어떤 단어의 의미를 알아챌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환경이다. 나이다는 언어가 단순히 단어들이 가진 의미의 총합이 아니라, 암호처럼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복잡하게 결합하여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sup>9)</sup>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이해하는 가운데, 각각의 단어가 결합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문맥에 무엇보다 유의해야 한다.

## 2.2. 문화와 의미의 문제

언어는 문화다. 한 언어는 그것이 속한 문화 속에서 의미를 구축해 나가게 된다. 나이다의 주장대로, 언어의 개념보다 문화가 선행한다.<sup>10)</sup> 어떤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가 속한 문화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배울 때 효과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한 문화에 속한 언어를 다른 문화에 속한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번역이 일어나는

7) 이영미, “한글 성경의 성 관련 용어들의 번역 용례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86.

8) Simon Crisp, “현대 성서 번역을 위한 도전들”, 『성경원문연구』 24 별책 (2009), 200 참조.

9) Eugene A. Nid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1964), 120.

10) 나이다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그 의미보다 단어에 먼저 친숙해지지만, 그것이 단어가 문화적 발전 속에서 형성된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는 그 어휘에 해당되는 개념을 먼저 경험하고, 그에 맞는 단어나 표현을 찾아내게 된다. 이것은 언어가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언어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으로서, 문화 속에서 발전된 개념이 언어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면서도 단어를 알아가는 과정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nwar S. Dil, ed., *Language Structure and Translation: Essays by Eugene A. Nid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5), 187을 참고하라.

과정에는 여러 가지 전제와 가정이 잠재되어 있고, 선입견과 편견이 작용하며, 가치 체계와 신념 체계가 작동하며, 본문에 대한 전승이 문제가 되며, 번역자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가 간여하게 된다.<sup>11)</sup>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문화와 관계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를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번역의 문제를 이국화와 토속화의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원문을 더 중시하는 번역은 독자를 저자에게 데려가도록 만드는 이국화(foreignization)를 낳게 된다. 이와 반대로, 대상 청중과 수용언어를 더 중시하는 번역은 자연스럽게 저자를 독자에게 데려가는 토속화(domestication)를 낳게 된다.<sup>12)</sup> 물론 이국화와 토속화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국화와 토속화에는 ‘저항’과 ‘낮설게하기’가 수반하게 된다. 한편으로, 번역의 과정에는 문화적인 저항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독성 있는 번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번역의 과정에는 낮설게 하기도 등장한다.<sup>13)</sup> 이러한 문제는 번역을 통해 문화를 뛰어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명해 준다. 번역자가 얼마나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번역이 이루어질 때 한 언어가 속한 문화적 토양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태도이다.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관용어의 번역에서 찾을 수 있다.<sup>14)</sup> 그러나 물론 관용어의 번역에서만 문화적 문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의 모든 번역에서 문화적인 문맥을 고려해야만 한다.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 고려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sup>15)</sup> 성경 번역은 다양한 문화에서 어떻게 텍스트적 관련성을 보여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칠십인역 성서가 구약성서 및 신약성서와 어

11) Simon Crisp, “현대 성서 번역을 위한 도전들”, 『성경원문연구』 24호 별책 (2009), 201.

12) Philip H. Towner, “고린도후서 낮설게하기를 위한 일례”, 『성경원문연구』 24호 별책 (2009), 224-226.

13) Ibid., 227.

14) 관용어 번역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토마스 카우트, “번역에서 잃어버린 부분: 요한계시록 2장 12-17절 -관용구 번역의 한 사례”, 『성경원문연구』 24호 별책 (2009), 290이하를 참고하라. 카우트는 이 글에서 요한계시록 2:17의 “흰 돌”에 대한 관용구 번역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15) 강신욱, “요한계시록의 정관사 번역 문제 - 요한계시록 12:14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22 (2008), 140-143. 강신욱은 요한계시록이 전통적으로 구약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구약 본문과의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본문 상호성”(intertextuality)이라는 번역어를 선호하는 가운데, 본문 상호성에 관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텍스트란 텍스트들의 순열, 즉 본문들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다. 다시 말해 텍스트의 공간에는 다른 텍스트들로부터 취한 여러 발언들이 서로 교차하고 서로를 중화시킨다.”

떻게 비교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유용한 일이다.

### 3. 번역본과 주석서의 용례 비교

요한계시록 14:6에 나타난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을 번역하는 것은 일견 간단한 문제처럼 보인다. 중성 명사인 *εὐαγγέλιον*을 중성 형용사인 *αἰώνιον*이 후치어로 수식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는 통상적인 헬라어 구문에 속한다. 따라서 다르게 번역될 소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형식적 동등성 측면에서는 쉽게 해결되겠지만, 내용적 동등성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번역본들과 주석서들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몇 가지 중요한 영어 번역본들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대부분의 중요한 영어 번역본들은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을 “everlasting gospel”(NKJV<sup>16</sup>)이나 “eternal gospel”(NRSV<sup>17</sup>), REV<sup>18</sup>), NIV<sup>19</sup>)로 번역하고 있다. 일부 번역본들은 “gospel”을 “good news”로 바꾸어 “eternal message of Good News”(GNB<sup>20</sup>), “eternal good news”(CEV<sup>21</sup>)로 번역하고 있다. 이밖에 “Eternal Message”(The Message<sup>22</sup>)로 축약된 형태를 보여주는 번역도 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이 “everlasting/eternal gospel/good news”로 번역한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 14:6에서 번역의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εὐαγγέλιον*을 “구원의 복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메시지 성경은 “eternal message”라고 번역함으로써, *εὐαγγέλιον*이 가진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 것처럼 보인다.

16) “Then I saw another angel flying in the midst of heaven, having the everlasting gospel to preach to those who dwell on the earth – to every nation, tribe, tongue, and people.”(NKJV)

17) “Then I saw another angel flying in midheaven, with an eternal gospel to proclaim to those who live on earth – to every nation and tribe and language and people.”(NRSV)

18) “Then I saw an angel flying in midheaven, with an eternal gospel to proclaim to those on earth, to every race, tribe, language, and nation.”(REV)

19) “Then I saw another angel flying in midair, and he had the eternal gospel to proclaim to those who live on earth – to every nation, tribe, language and people.”(NIV)

20) “Then I saw another angel flying high in the air, with an eternal message of Good News to announce to the peoples of the earth, to every race, tribe, language, and nation.”(GNB)

21) “I saw another angel. This one was flying across the sky and had the eternal good news to announce to the people of every race, tribe, language, and nation on earth.”(CEV)

22) “I saw another Angel soaring in Middle-Heaven. He had an Eternal Message to preach to all who were still on earth, every nation and tribe, every tongue and people.”(The Message)

그렇다면 한글 번역본들의 경우는 어떠할까? 놀랍게도 한글 번역본들은 영어 번역본들에 비해서 매우 획일적인 형식적 일치에 번역을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한글 번역본들(『개역개정』<sup>23)</sup>, 『새번역』<sup>24)</sup>, 『공동개정』<sup>25)</sup>, 『성경』<sup>26)</sup>)은 모두 “영원한 복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한글 번역본들은 요한계시록 14:6의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

앞에서 몇 개의 중요한 영어 번역본들과 한글 번역본들을 살펴본 결과, 요한계시록 14:6의 번역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은 너무도 단순한 용어로서 명백하게 한 가지 의미(“구원의 복음”)를 가리킨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다르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주석적인 작업을 통해 복잡한 해석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주석적인 결과에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른 번역을 채택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보다는 의미가 통하는 번역을 위해서, 본문에 대한 상세한 주석을 시도해 보는 것은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닐 것이다.

번역본들은 요한계시록 14:6의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을 번역할 때 특별히 다른 번역의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은 것 같지만, 주석서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주석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물론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는다. 자끄 엘릴은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이 14:1-5에 나오는 “어린양의 승리와 그의 백성의 구원”과 연관되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독특한 견해를 보여준다. 그는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을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소원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과 관련시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14:7) 된 것도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다.<sup>27)</sup>

23)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개역개정판)

24)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새번역)

25)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높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공동번역성서 개정판)

26)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높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권과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행, 2005])

27) 자끄 엘릴, 『요한계시록 주석: 움직이는 건축물』, 유상현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0),

브래처는 요한계시록 14:6에 사용된 *εὐαγγέλιον*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이라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좋은 소식”,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 이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류를 곧 심판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박해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이다. 브래처는 이 부분을 “그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였다.”로 해석한다.<sup>28)</sup>

크라프트는 요한계시록 14:6에 나오는 *εὐαγγέλιον*이 10:7과 마찬가지로 원래 부활 소식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부활 소식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 임할 것을 알려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크라프트는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이 구원의 부활 소식과 심판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임재하는 것은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의 기쁜 소식이지만,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위협이 된다.”<sup>29)</sup> 포드(Ford) 역시 요한계시록 14:6의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녀는 그것이 세상의 압박한 종말에 대한 선포로서,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백성에게는 나쁜 소식이 된다는 생각을 보여준다.<sup>30)</sup>

마운스(Mounce)는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의미하는 복음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다가오는 영원한 세대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소식과 관련되고 있다고 본다.<sup>31)</sup> 오스본(Osborne)은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이 신약성서의 다른 곳에 나오는 *εὐαγγέλιον*과 다르게 사용된 이유를 제시한다. 계 14:6에는 죄를 위한 예수의 희생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요한계시록 9:20, 21; 16:9, 11과 같이 회개에 대한 요구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다가오는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다른 학자들과 더불어 오스본은 요한계시록 14:6이 구원을 제시하지 않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8:13 등과 연결시키면서 14:6의 *εὐαγγέλιον*을 “최후 심판의 메시지”(message of doom)라고 설명한다.<sup>32)</sup>

220-221.

28) Robert G. Bratcher and Howard A. Hatton, *A Handbook on the Revelation to John*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3), 210.

29) Heinrich Kraft, 『요한묵시록』, 국제성서주석 47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297.

30) J. M. Ford, *Revelation*, The Anchor Bible, vol. 38 (New York: Doubleday, 1975), 236.

31) Robert H. Mounce,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1998), 270-271.

32) Grant R. Osborne,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534-535.



터커(Tucker)는 오스본과 유사한 견해를 보여준다. 그는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이 유일하게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천사에게 맡긴 사역이라고 하면서 묵시적인 심판(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한가운데서 선포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6에서 나타난 특이한 사항으로서 은혜, 피, 용서, 구속이라는 단어와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구속주를 예배하라는 권면이 없고 다만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만 있다고 말한다. 물론 여기에는 회개에 대한 권면이나 은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은혜는 거두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sup>33)</sup>

마이클스(Michaels)는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복음과는 반대로 “화”(8:13)에 가까우며,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난 복음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을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의 선포와 비교한다. 복음서에 나오는 고지(“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와 명령(“회개하라”)이 계시록에서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즉, 명령(“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고지(“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가 나온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지의 한 양상과 상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구원과 함께 심판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영원한”과 “복음”의 결합은 서로 상반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은 “새로운” 것인데 비해, 영원한 복음은 언제나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34)</sup>

스몰리(Smalley)는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의 내용이 14:7에서 설명되고 있다고 보면서, 그것이 “예수의 기쁜 소식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적 심판의 확실함”을 가리킨다고 말한다.<sup>35)</sup> 스몰리가 말하는 “구원적 심판”(saving judgment)이란 개념은 독특하다. 스몰리가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영원한 복음)을 ζωη αἰώνιος(영원한 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 “구원적 심판”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함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니(Aune)는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의 내용이 “임박한 심판이라는 맥락 속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호소”로 봄으로써,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 메시지를 가리키는 기독교적인 특수 용

33) W. Leon Tucker, *Studies in Revelation: An Expository Commentary*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0), 303.

34) J. Ramsey Michaels, *Revela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7), 173.

35) Stephen S. Smalley, *The Revelation to Joh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of the Apocalyps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5), 361.

법(특히 바울서신에서 발견되는)과는 거의 공통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sup>36)</sup>

마지막으로 빌(Beale)의 견해를 살펴보자. 빌은 천사의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은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심판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천벌적인”(judicial)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관한 근거로서 *εὐαγγέλιον*이 관사 없이 사용된 것과 인접 문맥의 의미(구원과 심판의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다니엘 12:7을 인용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0:7과 세 화[woe]를 선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8:13에서 보여주는 천벌적인 성격)를 들고 있다.<sup>37)</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석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종말론적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38)</sup> 이것은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이 많은 번역본들의 번역과 달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번역되어야 함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보다 상세한 본문 주석을 통해 적절한 번역의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 4. 본문 주석

지금까지 번역은 의미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올바른 번역은 그 단어나 구절이 속한 문맥과 그 단어가 의미를 구축하게 된 문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가 되는 단어나 구절을 번역할 때, 그것이 들어있는 전체의 글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요구된다. 주석적인 작업이 번역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David E. Aune, 『요한계시록 6-16』(서울: 솔로몬, 2004), 787.

37)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1999), 748-749.

38)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다른 예로 베드로전서 3:19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서 선포하셨습니다.”)를 들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두고 상반된 견해(복음의 선포와 심판의 선포)가 표출되는 곳이다.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과 달리 *κηρυσσω*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지만 *εὐαγγελίζομαι*와 같은 뜻의 단어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복음을 전하다”의 의미로 보통 쓰이는 단어가 이곳에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3:19나 요한계시록 14:6은 *κηρυσσω/εὐαγγελίζομαι*가 가진 일반적 의미와 다른 의미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3:19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Charles Bigg,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St. Peter and St. Jude* (Edinburgh: T. & T. Clark, 1901), 162-163과 J. N. D. Kelly, *A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eter and Jud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156을 참조하라.

어떤 글에 나타나는 의미 체계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번역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다. 어떤 글이 보여주는 문학적 형태, 수사법, 구조적 특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와 틀 속에서 주석적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글에 나타난 단어나 구절의 의미가 제대로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왕대일은 번역을 주석이 동반된 작업으로 보면서, 특히 내용의 동등성을 번역의 원칙으로 삼을 경우, 번역 과정에 주석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sup>39)</sup> 바람직한 번역은 원천언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데 있지 않으며, 그것을 수용언어의 독자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가 통하는 번역을 이루어내는 데 있다. 번역은 원천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서를 올바르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성경 원문을 올바르게 주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주석은 단지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단어나 문장을 해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해석된 글 전체의 의미와 문제가 된 부분을 무리 없이 연결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문맥과 일관성의 문제 및 문화와 의미의 문제를 본문을 주석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4.1. 문맥과 일관성

먼저 요한계시록 14:6의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요한계시록 14:6의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이 나오는 인접 문맥은 요한계시록 14:6-12이다. 이 부분은 세 천사의 선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6-12는 요한계시록 14:1-20이라는 더 넓은 문맥에 위치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4:1-20은 구원과 심판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구원과 심판의 대조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sup>40)</sup> 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14:1-5(십사만 사천의 노래; 구원)
- (b) 14:6-12(세 천사의 선언; 심판)
- (c) 14:13(복의 선언)
- (a') 14:14-16(곡식 추수; 구원)
- (b') 14:17-20(포도 추수; 심판)

39) 왕대일, “번역 속의 주석, 그 가능성과 한계—내용 동등성 번역의 경우—”, 『성경원문연구』 16 (2006), 62.

40) 이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수의 수사학”, 『신약논단』 (2001 여름호), 137-139 참조. 여기에서는 보다 넓은 문맥에서 구원과 심판의 대조를 다루고 있다.

이것을 내용의 주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구원과 심판의 주제가 대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곡식 추수가 구원을, 포도 추수가 심판을 의미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곡식 추수 장면에는 심판의 은유보다는 성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개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비해, 포도 추수 장면은 심판의 이미지(“불을 다스리는 천사”, “진노의 포도 주 틀”, “예리한 낫”, “성 밖에 대한 언급” 등)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sup>41)</sup> 이 필찬은 이 두 장면에 대해 언급하면서 곡식 추수는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며, 포도 수확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보컴(Bauckham) 역시 이와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sup>42)</sup> 조병수도 14:14-20에 대하여 말하면서, 땅의 수확(곡식 추수)이 포도 수확과 달리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sup>43)</sup> 그는 땅의 수확이 “선민의 종말론적인 거둠을 의미하며 또한 땅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보편적인 거둠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14:4에 나오는 첫 열매의 거둠 다음에는 본격적인 수확이 있게 마련인데, 이것이 14:14-16에 나오는 땅의 수확이라는 것이다. 조병수는 그것에 대한 이유로서, (1) 땅의 수확과 포도 수확 사이에는 수확하는 자의 차이(인자와 같은 이와 천사), (2) 수확하는 자의 행동(한 가지와 세 가지-거둠, 던짐, 밟음), (3) 수확의 결과(거둠-구원, 밟음-심판)을 들고 있다. 김경식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에 관해서 논하면서 요엘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sup>44)</sup> 그에 의하면, 포도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율 4:13에 근거하고 있는 데 비해, 곡식 추수는 요엘서와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처음 열매로서 속량을 받은 십사만 사천(계 14:4)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14:6이 위치한 14장 전체가 구원과 심판의 대조라는 큰 문맥을 보여주고 있다.

요한계시록 14:6은 또한 구조적으로 8:13과 유사성을 보여준다.

계 14:6 Καὶ εἶδον ἄλλον ἄγγελον πετόμενον ἐν μεσουρανήματι, ἔχοντα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 εὐαγγελίσαι ἐπὶ τοὺς καθημένους ἐπὶ τῆς γῆς καὶ ἐπὶ πᾶν ἔθνος καὶ φυλὴν καὶ γλῶσσαν καὶ λαόν,

계 8:13 Καὶ εἶδον, καὶ ἤκουσα ἐνὸς ἀετοῦ πετομένου ἐν μεσουρανήματι λέγοντος φωνῇ μεγάλῃ· οὐαὶ οὐαὶ οὐαὶ 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 ἐκ τῶν λοιπῶν φωνῶν τῆς σάλπιγγος τῶν τριῶν ἀγγέλων τῶν μελλόντων σαλπίζειν.

41) 이달, 『요한계시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255-259 참조.

42)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0), 209. R. Bauckham, 『요한계시록 신학』 (서울: 한울출판사, 2000), 142-148.

43) 조병수, “땅의 수확-요한계시록의 신학 일고-”, 『성경원문연구』 2 (1998), 66-67 참조.

44) 김경식, “요한계시록에서의 요엘서 사용”, 『신약논단』 (2011 가을호), 948-954.

전자는 천사가 전하는 내용이고, 후자는 독수리가 전하는 내용이다. 첫째, 두 구절은 καὶ εἶδον(또 보니)으로 시작하여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둘째, 천사와 독수리의 행동 양태를 보여주는 πετόμενοι ἐν μεσουρανήματι/πετομένου ἐν μεσουρανήματι(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하늘 한가운데로 날아서)라는 구문이 나온다. 셋째, 천사와 독수리가 메시지를 전해 줄 대상이 ἐπὶ τοὺς καθημένους ἐπὶ τῆς γῆς/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땅 위에 살고 있는/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로 같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이 시사하는 바는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천사와 독수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대조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천사는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을 전하고 있는 데 비해, 독수리는 세 번에 걸쳐 οὐαὶ(화로다!)를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천사의 임무는 다분히 심판에 관련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sup>45)</sup> 천사와 독수리의 이러한 대조는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의 성격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은 οὐαι와의 대칭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심판의 메시지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요한계시록 14:6-12는 이처럼 심판의 문맥에 놓여 있다. 세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장면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46)</sup> 첫째 천사에 관한 내용은 맨 나중에 미루고, 먼저 둘째 천사가 선포한 내용부터 살펴도록 하겠다. 둘째 천사는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 “무너졌도다!”를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말한 것은 바빌론 멸망이 확실함을 보여준다.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바빌론은 요한계시록에서 모두 여섯 번(14:8; 16:19; 17:6; 18:2, 10, 21) 등장한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와 그로 인해 발생한 부도덕으로 만국을 “음행”하게 한 죄를 지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임을 강조한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로서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로마 제국은 “큰 성”으로 일컬어진다. 예루살렘을 큰 성으로 부른 11:8을 제외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14:8; 16:19; 17:5, 18; 18:2, 10, 16, 18, 19, 21)은 모두 바빌론을 가리키고 있다. “큰 성”은 멸망

45) 요한계시록 14:6에 첫째 천사를 “다른(ἄλλος) 천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인접 문맥에 어떤 천사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어색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바이스(J. Weiss)는 14:6의 ἄγγελος를 8:13에 나온 “독수리”(ἄετος)와 연관시켜 14:6의 ἄλλον ἄγγελον을 ἄλλον ἄετον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8:13과 14:6이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보이는 것에 근거하여). 또 다른 견해는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11:5)에 나오는 천사인 일곱째 나팔을 분 천사와 관련을 시키는 것이다(즉, 11:5에 나온 천사를 전제로 한다면 ἄλλος가 설명이 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D. E. Aune, 『요한계시록 6-16』(서울: 솔로몬, 2004), 784-785와 이달, 『요한계시록』(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247-248을 참조하라.

46) 세 천사가 선포한 내용에 관해서는 이달, 『요한계시록』(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248-252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받을 원수의 성읍을 경멸적으로 그리고 냉소적으로 일컫고 있다. 둘째 천사는 이러한 큰 성 바빌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천사는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한다. 13:15에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한다고 언급한 것에 비해, 14:9, 11은 짐승을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강렬한 분노를 의미한다. 당시 물과 포도주의 비율이 1:1이나 3:2였다고 하는데, 물을 섞지 않은 포도주는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처럼 셋째 천사 역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첫째 천사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첫째 천사의 선포 내용에는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선포만큼 심판의 메시지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이 부분 역시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첫째, 14:6-12 전체 문맥에서 보여주는 심판의 분위기다. 둘째, 14:7은 첫째 천사가 선포한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천사는 공중을 날아가면서 메시지를 선포한다. 이것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명령형은 그 반대의 사실을 전제한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보편적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다.

언어의 의미는 무엇보다 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 많은 어휘는 다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의미로 고착될 수 없다. 또 언어의 의미는 자동적으로 결정되지도 않는다. 문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14:6에 나오는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 어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구원의 복음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εὐαγγέλιον*이 가진 의미와 일관성이 유지될 수 없다. 문맥에 따르면,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2. 문화와 의미

이제 *εὐαγγέλιον*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특정한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는지 그 언어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εὐαγγέλιον*은 원래 “기쁜 소식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기쁜 소식” 자체를 의미하게 되었다.<sup>47)</sup> 이 “기쁜 소식”은 전쟁에서의 승리, 후계자(황제의 아들)의 출생, 황제

의 등극과 같은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었다.<sup>48)</sup> 이것을 보면 이 단어가 원래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용어가 기독교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칠십인역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이후로 보아야 한다. 맥레이(McLay)는 εὐαγγέλιον과 같은 세속적인 헬라어에 칠십인역이 신학적이고 전문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sup>49)</sup> 이것은 εὐαγγέλιον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여 갔음을 보여준다. 칠십인역에서 세속적인 고대 문서에서 사용된 εὐαγγέλ- 어근을 가진 명사(εὐαγγέλιον, εὐαγγελια, εὐαγγελιος, εὐαγγελημα, εὐαγγελιστης, εὐαγγελος)와 동사(εὐαγγελιζω, εὐαγγελιζομαι, προεὐαγγελιζομαι)를 조사하고 연구한 호슬리(Horsley)에 의하면, 중성 명사 단수 형태인 εὐαγγέλιον이 기독교 문서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그것으로 인해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50)</sup>

그러나 요한계시록 14:6에 나오는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요한계시록 14:6에 나오는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의 번역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 우선 εὐαγγέλιον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단어다. 형식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요한계시록에서 εὐαγγέλιον과 αἰώνιον의 결합(소위, “영원한 복음”)도 유일하게 등장한다.<sup>51)</sup>

문법적으로도 관사가 없이 사용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신약성서에서 εὐαγγέλιον이 관사 없이 사용된 경우는 요한계시록 14:6과 로마서 1:1뿐이다. 왜 관사 없이 사용된 것일까? 그것이 의도적이라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 문제는 그것이 사용된 문맥과 용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G. K. 빌(Beale)은 마운스(Mounce)를 인용하여 관사 없이 사용된 εὐαγγέλιον이 단지 문체적인 변화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기 위한 목

47) 전경연, 『로마서 연구』(서울: 향린사, 1966), 68.

48) Walter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F. W. Danker, rev. ed., 3rd edi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402-403. 박익수, 『로마서 주석 I』(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11. 전경연, 『로마서 연구』(서울: 향린사, 1966), 68. O. A. Piper, “Gospel (Message)”,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ashville;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442-448.

49) R. Timothy McLay, *The Use of the Septuagint in New Testament Research*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2003), 148.

50) G. H. R. Horsley, *New Documents Illustrating Early Christianity: A Review of the Greek Inscriptions and Papyri published in 1978*, vol. 3 (The Ancient History Documentary Research Center: Macquarie University, 1983), 14.

51) 요한복음에도 αἰώνιο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ζων와 결합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용례와 차이를 보여준다.

적이라고 보고 있다. 요한계시록 14:6에 나오는 *εὐαγγέλιον*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그리스도의 은총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데서도 암시되어 있다. 로마서 1:1의 경우는 미약하지만 로마서 1:18ff와 관련지어 볼 때 역시 진노의 문맥과 연결되고 있다.<sup>52)</sup> 롤로프(Roloff) 역시 *εὐαγγέλιον*이 복음을 의미하려면 관사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는 요한계시록 14:6이 이사야 52:7의 용례를 따른 것 같다고 말하면서, *εὐαγγέλιον*이 심판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메시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sup>53)</sup> 박익수는 *εὐαγγέλιον*이 “세상에 대한 승리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묵시적 기원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sup>54)</sup>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0:7과 14:6에 나오는 동사 형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능동태 형태인 *εὐαγγελιζω*가 신약성서에서 유일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다/선포하다”의 의미로는 중간태 형태인 *εὐαγγελιζομαι*가 사용되는 것이 통례인 것에 비하면(신약성서에서 이 중간태 형태는 52회 등장한다<sup>55)</sup>) 특이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왜 요한은 관사 없이 명사 *εὐαγγέλιον*을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어근을 가진 동사 *εὐαγγελιζω*를 중간태가 아닌 능동태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요한이 바울을 비롯한 다른 신약성서 기자들과 다른 전승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와 같은 의문은 슈틀마허 역시 가지고 있었다. 슈틀마허는 요한계시록 10:7과 14:6에서 사용된 *εὐαγγελιζω*가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위해 오신다는 메시지가 전파되던 초기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기독교의 용법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sup>56)</sup> 적어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복음 전승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능동태 동사 형태인 *εὐαγγελιζω*는 칠십인역에서도 두 번(삼상 13:9; 삼하 18:19)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헬라어 사용에 있어서 능동태 동사인 *εὐαγγελιζω*를 잘 활용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된다. 왜 요한은 잘 사용되지도 않는 능동태 동사(그것도 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만을 사

52)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1999), 748. 관사 없이 사용된 것을 두고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빌(Beale)은 동사 형태로 *εὐαγγελιζω*가 10:7에 이미 나온 상태이고, 14:6에서도 다시 한 번 같은 동사가 동족 목적어와 함께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 εὐαγγελίσαι*)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53) Jurgen Roloff, *The Revelation of John*, trans. J. E. Alsup (Minneapolis: Fortress, 1993), 174-175.

54) 박익수, 『로마서 주석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11.

55) David E. Aune, 『요한계시록 6-16』 (서울: 솔로몬, 2004), 787.

56) Ibid., 376.



용한 것일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선포하다”라는 일반적 의미와 구별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요한계시록에서 εὐαγγελίζω의 사용 방식을 알려주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상호텍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니(Aune)는 10:7(καὶ ἐτελέσθη τὸ μυστήριον τοῦ θεοῦ, ὡς εὐηγγέλισεν τοὺς ἑαυτοῦ δούλους τοὺς προφήτας.;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의 배후에 아모스 3:7(“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אֵלֶּיךָ הִגַּבְתִּי אֶת־כָּל־עֲשָׂוֵי לִבִּי וְלֹא יָשַׁע אֲדֹנָי יְהוִה דָּבָר כִּי אִם לְהַגִּיד אֵלֶיךָ אֵלֶּיךָ הִגַּבְתִּי אֶת־כָּל־עֲשָׂוֵי לִבִּי)이 있다고 말하면서, εὐαγγελίζω가 “복음을 전하다/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 전달의 동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sup>57)</sup> 아모스 3:7에 나오는 “알리다”는 히브리어로 הִגַּבְתִּי를 사용하고 있는데, 칠십인역은 이를 “계시하다”라는 의미의 ἀποκαλυπτω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아모스서를 배경에 두고 있는 요한계시록 10:7은 εὐαγγελίζω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0:7의 εὐαγγελίζω는 הִגַּבְתִּי와 ἀποκαλυπτω의 의미에서 보듯이 복음 전파라는 전문용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요한계시록 10:7이나 아모스 3:7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비밀”(μυστήριον; 17)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계획, 즉 심판과 관계되는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εὐαγγελίζω와 히브리어의 대응어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히브리어 רָשַׁב/רָשַׁבְתִּי는 칠십인역에서 항상 εὐαγγελίζω/εὐαγγέλιον/εὐαγγελία로 번역되었다.<sup>58)</sup>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칠십인역의 εὐαγγελ- 어휘는 반드시 히브리어 성서에서 רָשַׁב/רָשַׁבְתִּי로 나타나지 않는다. 칠십인역에서 εὐαγγελίζω/εὐαγγελίζομαι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훨씬 다양하다.<sup>59)</sup> 이는 다양한 히브리어가 εὐαγγελ- 어휘와 상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칠십인역에서 εὐαγγελ- 어휘로 번역된 용례들 중에서 이사야서의 경우는 언급할 가치가 있다. εὐαγγελίζω/εὐαγγελίζομαι 동사는 이사야서에서 40:9(2번); 52:7(2번); 60:6; 61:1에 여섯 번 등장하고 있는데, 사용된 문맥을 보면 모두 “기쁜 소식을 전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다

57) David E. Aune, 『요한계시록 6-16』(서울: 솔로몬, 2004), 373-376.

58) Takamitsu Muraoka, *Hebrew/Aramaic Index to the Septuagint: Keyed to the Hatch-Redpath Concordance*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30.

59) Edwin Hatch and Henry A. Redpath,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568.

넓은 문맥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빌(Beale)은 이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칠십인역 이사야서에 나오는 εὐαγγελίζω/εὐαγγελίζομαι 동사가 단지 구원의 기쁜 소식만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60)</sup> 결론적으로, εὐαγγέλι-어휘는 그것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독교적인 전문 용어로 사용되지 않은 언어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요한계시록 10:7이나 14:6에서는 문맥적으로 보거나 칠십인역 등의 상호텍스트적 관계로 보거나 일반적인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4:6에 나오는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14:7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천사가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두려워하다”와 “영광을 돌려라”라는 단어와 구문은 믿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려워하다”(φοβεομαι)라는 동사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sup>61)</sup> 천사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1:13에 보면, 큰 지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싸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εμφοβος(두려움에 싸여서)라는 단어는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신약성서에서 εμφοβος(눅 24:5, 37; 행 10:4; 24:25 참조)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sup>62)</sup> 이것을 보더라도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구원의 선포가 아닌 심판의 선포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빌(Beale)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돌린” 요한계시록 11:13; 14:7이 다니엘4:34, 37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63)</sup> 다니엘서에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것이 회개의 징표는 아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을 받

60)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1999), 748. 마르코스(N. F. Marcos)는 요한계시록에 구약과 연관된 부분이 120군데인데, 그 중에서 53곳만이 직접 인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요한계시록의 구약 인용에 칠십인역이 미친 영향에 관한 논의는 Natalio Fernández Marcos, *The Septuagint in Context* (Leiden: E. J. Brill, 2000), 328-331을 참조하라. 칠십인역이 신약성서 어휘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R. Timothy McLay, *The Use of the Septuagint in New Testament Research*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2003), 144-148을 참조하라.

61) 이달, 『요한계시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202 참조.

62) Ibid., 201-202.

63)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1999), 751.

게 되지만,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이 전해질 대상인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계 14:6)이라는 문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특정 문구는 요한계시록에 모두 일곱 번(5:9; 7:9; 10:11; 11:9; 13:7; 14:6; 17:15) 나온다. 이 문구는 특별히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된다. 5:9와 7:9는 확실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5:9는 주의 피로 산 백성을 의미하고 있으며, 7:9는 구원 받은 만백성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다섯 곳(10:11; 11:9; 13:7; 14:6; 17:15)에서 이 문구는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빌(Beale)은 14:6에서 사용된 이 문구가 중생하지 못한 다수를 가리킨다고 확인해 준다.<sup>64)</sup> 이처럼 요한계시록 14:6은 구원받지 못할 대상을 향해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다.

## 5. 결론 및 번역 제안

*εὐαγγέλιον*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14:6에만 한 번 나온다. 신약에서 로마서 1:1과 함께 관사 없이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10:7과 14:6에만 나오고 있는 *εὐαγγελίζω*라는 능동태 동사 역시 주목을 끈다. 같은 어근인 동사와 명사를 연속하여 사용한 것도 유일한 조합이다.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증거가 된다.

*εὐαγγέλιον*이라는 용어는 일견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중요한 명사가 관사 없이 등장하며 *αἰώνιον*이라는 단어 및 동족 능동태 동사와 결합하면서 해석에 주의를 요하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14:6에 나오는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번역하기 위해서, 먼저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이 사용된 다양한 문맥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εὐαγγέλιον*이 어떤 언어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고 변천시켜 왔는지에 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이 전통적인 의미인 구원의 복음보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밝혀 냈다.

그렇다면, 심판을 가리키면서도 구원을 의미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믿는 자들을 향해 선포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오니(Aune)가 세르포(Cerfaux)를 인용하여 말

64)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1999), 749.

한 것과 같이,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이라는 어구가 세상의 임박한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견지에서 “황제 숭배 제의에 관한 복음에 대한 항의로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황제 숭배에 관한 복음이 오직 잠정적인 의미만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sup>65)</sup>는 것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닐까? 즉, 거짓된 황제 숭배 제의라는 “복음”에 대한 항의와 심판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도 복음이다. 복음은 또한 심판이다. *εὐαγγέλιον*은 요한계시록 14:6에서 심판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언제나 있었고 영속적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관계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복음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복음)이 된다.

어떤 단어의 의미는 문법적인 측면과 의미론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대체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나이다는 어떤 단어가 가질 수 있는 함축적이고 내포적인 의미(*connotative meaning*)에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sup>66)</sup> 나이다는 그 단어를 말하는 화자의 성격과 그 단어가 사용된 특별한 상황과 그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결합하고 있는 환경을 들었다. 즉,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어떤 단어들과 함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논의에 적용해 보면, 앞의 본문 주석을 통해 입증한 대로 요한계시록 14:6은 심판의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가 심판의 문맥에서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들과 함께 심판을 내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나이다는 단어와 개념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히브리어 성서나 헬라이어 성서에 나오는 단어가 반드시 한 단어로 번역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sup>67)</sup> 왜냐하면 의미의 전달이 형식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을 번역함에 있어서, 이 문구가 가진 양면성과 함께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영원한 심판의 복음”으로 번역할 것을

65) David E. Aune, 『요한계시록 6-16』(서울: 솔로몬, 2004), 789. 김선정은 로마제국 시대에 황제 숭배 제의가 “종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한다. 로마 속주에 속한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조건이 되는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선정, “원시기독교의 사회적 정황: 로마 황제 제의를 중심으로”, 『신약논단』(2005 봄), 210-215를 참고하라.

66) Eugene A. Nida and Charles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82), 92-94.

67) Anwar S. Dil, ed., *Language Structure and Translation: Essays by Eugene A. Nid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5), 185 and 189.

제안한다. 이는 주석에서 취급되어야 할 부분을 번역에서 다루게 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전달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요어>(Keywords)

유앙겔리온 아이오니온, 요한계시록, 성서 번역, 문맥, 문화, 주석.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 The Book of Revelation, Bible Translation, Context, Culture, Exegesis.

(투고 일자: 2012년 7월 16일, 심사 일자: 2012년 8월 17일, 게재 확정 일자: 2012년 9월 5일)

<참고문헌>(References)

- 강신옥, “요한계시록의 정관사 번역 문제－요한계시록 12:14를 중심으로－”, 『성경 원문연구』 22 (2008), 139-160.
- 김경식, “요한계시록에서의 요엘서 사용”, 『신약논단』 (2011 가을호), 925-966.
- 김선정, “원시기독교의 사회적 정황: 로마 황제 제의를 중심으로”, 『신약논단』(2005 봄), 197-217.
- 박익수, 『로마서 주석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왕대일, “번역 속의 주석, 그 가능성과 한계－내용 동등성 번역의 경우－”, 『성경원문연구』 16 (2006), 62-77.
- 이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수의 수사학”, 『신약논단』 (2001 여름호), 129-154.
- 이달, 『요한계시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 이영미, “한글 성경의 성 관련 용어들의 번역 용례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86-108.
-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0.
- 진경연, 『로마서 연구』, 서울: 향린사, 1966.
- 조경철, “성서 주석과 번역-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4 (2009), 110-131.
- 조병수, “땅의 수확－요한계시록의 신학 일고－”, 『성경원문연구』 2 (1998), 51-69.
- Aune, D. E., 『요한계시록 6-16』,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04.
- Baukham, R., 『요한계시록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0.
- Bauer, W.,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F. W. Danker, rev. ed., 3rd edi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eale, G. K.,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1999.
- Bigg, C.,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St. Peter and St. Jude*, Edinburgh: T. & T. Clark, 1901.
- Bratcher R. G. and Hatton, H. A., *A Handbook on the Revelation to John*,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3.
- Crisp, S., “현대 성서 번역을 위한 도전들”, 『성경원문연구』 24 별책 (2009), 197-208.
- Dil, A. S., ed., *Language Structure and Translation: Essays by Eugene A. Nida*,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5.
- Ellul, J., 『요한계시록 주석: 움직이는 건축물』, 유상현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0.
- Ford, J. M., *Revelation*, The Anchor Bible, Vol. 38, New York: Doubleday, 1975.
- Hatch, E. and Redpath, H. A.,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 Baker Books, 1998.
- Horsley, G. H. R., *New Documents Illustrating Early Christianity: A Review of the Greek Inscriptions and Papyri published in 1978*, Vol. 3, The Ancient History Documentary Research Center: Macquarie University, 1983.
- Kaut, T., “번역에서 잃어버린 부분: 요한계시록 2장 12-17절 - 관용구 번역의 한 사례”, 「성경원문연구」 24 별책 (2009), 290-306.
- Kelly, J. N. D., *A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eter and Jud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 Kraft, H., 『요한묵시록』, 국제성서주석 47,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 Marcos, N. F., *The Septuagint in Context*, Leiden: E. J. Brill, 2000.
- McLay, R. T., *The Use of the Septuagint in New Testament Research*,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2003.
- Michaels, J. R., *Revelation*,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7.
- Mounce, R. H.,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1998.
- Muraoka, T., *Hebrew/Aramaic Index to the Septuagint: Keyed to the Hatch-Redpath Concordance*,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 Nida, E. 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1964.
- Nida, E. A. and Taber, C. 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82.
- Olofsson, S., “Consistency As a Translation Technique”, *SJOT*, 6:1 (1992), 14-30.
- Osborne, G. R.,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 Piper, O. A., “Gospel(Message)”,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ashville;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 Roloff, J., *The Revelation of John*, J. E. Alsup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93.
- Smalley, S. S., *The Revelation to Joh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of the Apocalyps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5.
- Towner, P. H., “고린도후서 낯설게하기를 위한 일례”, 「성경원문연구」 24 별책 (2009), 222-249.
- Tucker, W. L., *Studies in Revelation: An Expository Commentary*,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0.

<Abstract>

##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 in Revelation 14:6

Prof. Dal Lee  
(Ha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appropriate translation of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 which is found in Rev.14:6. Since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 has been understood to be related mostly to the saving gospel available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ranslating those particular words seems to be no problem at all. But as a matter of fact, it is not so. The word εὐαγγέλιον appears only in Rev. 14:6, and without an article. Throughout the entire New Testament, the combination of εὐαγγέλιον with αἰώνιον occurs only once, and its cognate verb εὐαγγελίζω as an active voice verb form is found only in Revelation 10:7 and 14:6. The latter is important because the general sense of “proclaiming the gospel” is related with εὐαγγελίζομαι, the middle voice verb form used in other places of the NT.

To justify the translation of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 in Rev. 14:6 in the sense of judgment rather than salvation, two principles are applied: the issue of consistency and context, and the issue of culture and meaning. According to Nida’s translation theory, functional equivalence is preferred to formal correspondence. Meaning should be more appreciated than form. Form must be changed in order to preserve the content of the message.

Firstly, translation of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 are compared among English Bible versions and Korean Bible versions. And then interpretation of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 is compared among some prominent commentaries. As a result, juridical side of εὐαγγέλιον is disclosed in commentaries. Secondly, using the two principles mentioned above, the context of Rev. 14:6 is investigated, and the linguistic culture of the word εὐαγγέλιον is developed along with the inter-textuality of the word. Finally, a desirable Korean translation of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 is suggested as a conclusion.